

# 지치고 힘들 때 사찰이 내 곁에

도심 속에서 고요함을 찾기로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속단은 금물이다. 산사에 서만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고요함이 도시 한복판에도 자리하고 있다. 고단하게만 여겨졌던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잠시나마 세속에서 쌓인 번뇌를 벗어버리게 만드는 도심 속의 사찰들이 바로 그곳이다. 이런 전국의 도심 속 절을 찾아 참된 나를 돌아보는 휴식시간을 가져보자.

## 서울 삼성동 봉은사

새로운 볼거리들이 샘솟고, 젊은이들이 들끓는 강남에도 천년의 역사가 흐른다. 봉은사는 거대한 컨벤션센터 코엑스와 최고급 호텔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다. 1200여 년이라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봉은사는 종로의 조계사와는 달리 적잖은 숲이 우거져 있어 산사와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간직한 봉은사는 문화적 향취가 느껴지는 유적지다. 얼마 전 봉은사는 주지 명진 스님의 천일기도 회향법회를 가져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봉은사도 조계사와 더불어 외국관광객들의 필수 관광코스가 될 정도로 많은 이들의 발길이 닿는 곳으로, 외국인 템플스테이 등을 활성화해 한국불교를 알리는 포교에 힘쓰고 있다.



## 부천 석왕사

부천 석왕사는 부천시 원미구 원미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다. 1976년 고산 스님이 석왕사를 중창했으며, 부천의 도시개발이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현재 도심 사찰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석왕사 위쪽으로 약수터 등 등산로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아침저녁 운동을 삼아 석왕사를 지나다니고 있다. 현재 도시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과 사회복지활동 등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10월 18-25일은 석왕사 중창 32주년 기념 개산대제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부천시민과 불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서울 성북동 길상사

가을에 붉게 물든 낙엽들을 보며 시 한편 읊고 싶어지는 그런 사찰이 있다. 바로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길상사다. 한때는 인간의 욕정들이 넘쳐난 요정이, 이제는 청정 도량으로 바뀌어 사람들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돼주고 있다. 길상사의 모습은 웅장하고 장엄한 맛은 없지만, 소박하고 단아한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사찰 중 하나이다. 언뜻 보면 사찰이 아닌 예쁘게 가꾼 정원 같은 분위기 덕에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하다. 10월 17-18일은 가을 음악회와, 전시회가 있을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 청주 관음사

청주 관음사는 도심에 인접한 산지에 자리 잡고 있는 자그만 사찰이다. 관음사에서 바라보는 저녁 노을과 도심야경은 이미 청주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또한 주변 산책로와 더불어 관음사는 청주의 조용한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관음사는 예전 계향사 때의 면모를 잇기 위해 임시로 지어진 법당과 퇴락한 요사를 헐고 40평 목조건물인 극락보전을 건립한 뒤, 전통양식으로 천불보전을 완공했다. 현재 관음사는 신도회를 비롯해 10여 개 정도의 수행단체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선도와 어린이 포교에 앞장서면서 청주의 수행과 포교의 중심 사찰로 거듭나고 있다.



## 대구 관음사

대구에서 포교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사찰이 있다. 바로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다. 현재 가장 많은 포교사를 배출한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관음사는 지역의 복지활동과 종교활동을 병행하며 불국도에 앞장서고 있는 도량이다. 사찰은 전국 최대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며, 대웅전을 비롯한 옥불보전, 참좋은어린이집 및 유치원, 영남불교대학복지재단, 노인전문요양병원 등 다양한 포교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서울 신촌 봉원사

천년 역사가 깃든 태고종 대표 사찰 봉원사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내년을 기약해야 할 듯하다. 봉원사의 대표적 자랑거리인 연꽃축제와 영산재 공연이 여름에 개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일. 봉원사의 볼거리는 이것이 전부 아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만봉 스님의 불화는 봉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다. 봉원사는 최근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된 영산재를 정기적으로 공연하는 등 불교문화전통의 맥을 잇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사찰이다.



## 춘천 삼운사

삼운사는 춘천 봉의산 아래 자리하고 있으며, 1700여 평의 대지에 지상 4층 연건평 2000여 평 규모의 큰 법당과, 공연장, 요사채, 다도실 등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형 사찰이다. 춘천 문화의 장인 종합불교회관으로 역할을 수행해가는 삼운사의 모습은 이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느낌을 자아낸다. 삼운사는 "사찰은 불자와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이어야 한다"는 목표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등을 개설해 춘천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 제주 약천사

제주하면 이국적인 가로수, 하늘빛 바다, 하얀 모래, 돌, 바람 등 다양한 제주만의 특색있는 이미지들이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유명 관광지에도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는 도량이 있다. 현재 신혼부부들의 제주여행 필수코스인 각광받는 약천사는 불사가 시작되기 전, 좋은 약수가 있어서 더 유명했던 곳이다. 인근 주민들이 이 약수를 마시고 병이 완쾌했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약천사의 약수는 수질이 좋았다. 많은 이들의 건강을 찾아주는 약천사 약수처럼 약천사도 그런 인연에 더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모두 편안함을 얻기를 기도하는 사찰이다. 그런 바람 때문인지 약천사는 그야말로 서로가 배우고, 가르치고, 수행하고, 기도하는 성불터전이 됐다.



## 부산 미타선원

부산 용두산 자락에 자리 잡은 미타선원은 참선 학교로 널리 알려진 절이다. 그리 오래된 역사를 간직하지는 않지만 젊은 스님과 신도들이 큰 뜻을 품고 참선하는 도량이다. 현대적 느낌이 풍기는 건물 1층은 갤러리, 2층은 사찰음식 및 선 강좌, 3층은 설법과 다도 등을 배울 수 있는 부산의 문화센터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또한 누구나 참선 수행을 할 수 있는 시민선방이 마련돼 있어 다양한 수행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 광주 무각사

광주 시내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 무각사는 서울 조계사·봉원사 모습과 흡사하다. 하지만 무각사가 뿜어내는 정갈하고 단아한 분위기는 어디 가겠는가. 광주의 팔경 중 하나인 여의산에 자리 잡고 있는 무각사는 광주의 행정, 문화, 상업이 옮겨지면서 광주 시내 대표 사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5000여 평 대지에 300여 명이 동시에 자리할 수 있는 광주 최대의 법당을 자랑한다. 특히 무각사는 5·18기념공원 및 산책로가 있어 광주시민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전시회장, 북카페, 전통찻집, 문화강좌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광주의 문화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 군산 동국사

군산 동국사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일본식 사찰이다. 1913년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스님이 건립한 사찰로, 일본식 건축양식이 많이 남아 있는 절이다. 대웅전과 요사가 하나로 연결돼 단청이 없는 흑백의 대비가 눈길을 끄는 동국사는 어느 다른 절과는 분위기부터가 다르게 느껴진다. 동국사 주변은 일본 대나무 숲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근대와 전통문화를 보유했던 이의 눈을 즐겁게 해준다. 또한 신발을 벗지 않고 선 채로 예를 올리는 일본의 전통 불교양식도 한국불자들에게는 새로운 볼거리 중 하나다. 동국사는 규모는 작아도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지역포교와 봉사활동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



# 大韓佛敎曹洞宗

현대불교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宗正 智明,德瓚 僧正院長 恒帝,德周  
總務院長 大隱,德牛 中央監察院長 德性,行性 中央宗會議長 海倫,行峰

禪院長: 眞一  
中央護法院長: 慧泉  
中央布教院長: 優潭  
中央教育院長: 光慧  
中央律院長: 雲潭  
中央宗會副議長: 雲性  
中央宗會副議長: 知遠

京畿宗務院長: 法空  
江原宗務院長: 慧覺  
忠北宗務院長: 慧惺  
忠南宗務院長: 法空  
嶺東宗務院長: 慧空  
慶南西宗務院長: 法光  
慶南中宗務院長: 慧山  
嶺南宗務院長: 慧悟  
慶北宗務院長: 雲鶴  
南海宗務院長: 清雲  
釜山宗務院長: 道一

僧正副院長: 心月  
僧正委員: 圓峰  
僧正委員: 法空  
僧正委員: 慧空  
副院長: 眞法  
總務部長: 古牛  
財務部長: 法蓮  
教務部長: 海權

社會部長: 慧山  
監察部長: 慧明  
布教部長: 素圓  
文化部長: 月峰  
監察局長: 道賢  
教務局長: 月光  
財務局長: 清淨  
社會局長: 法文  
糾正局長: 松潭  
文化局長: 平潭